

# 구례군, '新타인능해 구례 희망나눔가게' 개장

### 어려운 이웃 월 1회 2~3품목 무료로 이용 가능 일상 속 나눔문화 확산...복지 상담실 병행 운영

구례군과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일상생활 속 나눔 실천과 확산을 위해 '新타인능해 구례 희망나눔가게'를 25일 구례읍 상설시장 내에 개장했다고 밝혔다. 구례 희망나눔가게는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구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해 운영한다. 지역 주민이 식품류, 생활용품 등을 나눔 가게에 기부하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이 월 1회에 한하여 2~3품목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 기업, 단체 등 후원과 더불어 일상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기부를 함으로써 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는 김순호 구례군수,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재신 민간위원장,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장, 협의

체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을 알리는 커피식을 진행했다. 임재신 민간위원장은 "누구나 도움을 주고 어려운 이웃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희망나눔가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산동면 나누고 가게에 이어서 두 번째 나눔 가게를 개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린다"며, "운조루의 타인능해 정신을 이어받은 희망나눔가게를 통해 기부를 주고받는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나눔가게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복지 상담실도 병행 운영하여 이용자가 희망 시 맞춤형 복지 상담을 할 수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 화순군, 청풍·이양면 참깨 우량 모종 공급

### 지역농협과의 계약재배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

화순군은 지난 21일부터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육성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의 하나로 청풍면과 이양면에 참깨 다수확 품종인 슈퍼안산(백설개) 우량 모종을 공급했다. 화순군은 농업·농촌 활성화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1읍·면 1특새 소득작목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1일과 24일 화순군은 '유지작물 참깨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청풍면과 이양면 105개 농가에 슈퍼안산 참깨 우량모종을 공급했다. 해당 농가들은 이주 중 12.5ha 면적에 아쭈시기를 시작하고 우량 다수확 신품종 참깨 재배단지 육성에 나설 예정이다. 슈퍼안산개는 시들병과 일교병에 강하고 다분지성으로 다수확이 가능한 품종이다. 다른 품종보다 단백질과 리놀레산 함량이 높아 고품질 참기름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육묘 후 정식하기 때문에 꼬투리 달리는 부위가 낮아 수량이 늘어나고 잘 쓰러지지 않는다. 작물 생육이 균일하고 숙음 작업도 생각할 수 있어 병해충 감소와 노동력 절감 효과도 높다. 화순군은 참깨 재배의 보편적 방식인 2줄 직파재배 대신 1줄 이식재배 방식을 시범 도입하고 전체 농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계약재배를 통해 이양·청풍 농협이 농가 재배한 참깨 전량을 수매할 예정이므로 농가에서는 판로 걱정 없이 재배에만 전념할 수 있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참깨 우량모 공급과 더불어 참깨 생육단계별 현장 재배기술 지원과 농가 교육을 통해 고품질 참깨 생산하고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담양 창평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주민 건강 지킴이 역할 특출

### 물리치료실·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호응



담양군이 지난 2월에 개소한 창평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을 위해 각종 의료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을 통해 통증을 개선하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70세 이상 건강위

협 대상군을 대상으로 한방노인중점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문보건팀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음향시스템을 갖춘 다목적실에서 요가, 체조, 치매워터 등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주민자치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선도적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소생활동 중심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지역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곡성군, 다문화가족 정착 위해 300만원 지원 행복플러스 지원사업...다문화 교육 수강시 지원금 지급

곡성군이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구에 300만원을 지원하는 행복플러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5월 22일 곡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는 행복플러스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행사에는 다문화가족 9가구가 참석해 사업 추진의 배경과 참여방법 등에 귀를 기울였다.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 지원사업은 곡성군에서는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 센터에서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함에도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생업으로 인해 교육을 받기 어려워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원금을 통해 교육 이수를 유도함으로써 결혼이민자들의 조기 정착과 지역사회 융합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결혼 혼인 신고일 당시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2년이 넘지 않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곡성군은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아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참여자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90%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교육 완료 후 6개월 내에 2회의 가정방문 상담에 참여해야 한다. 교육은 5월부터 7월까지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이해, 다문화의 이해, 부부교육, 인권교육, 가족상담 등 4개 과정(총 20회기 40시간)으로 진행된다. 곡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금주 센터장은 "센터에 많은 교육과 프로그램이 있으나 이번처럼 통합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다. 결혼 초기 다문화가족에게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결혼 초기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혜영기자

## 나주시, 도내 최초 '남도장터' 택배비 지원

### 지역 농가·농식품 업체에 1건당 1000원 지원...100만원 한도

나주시가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 입점한 지역 업체의 택배비 일부를 지원한다. 나주시는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이달부터 남도장터에서 주문·발송한 택배 1건 당 1000원을 지역 농가 및 농식품 업체에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택배비는 '나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난 4월 사전 접수를 통해 선정된 업체당 100만원 한도, 예

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업체는 입점 시 주소지 읍·면·동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남도장터에 입점한 나주시지역 농가·업체 수는 총 126개소로 지난해 약 22억4700만원(월 평균 1억8000만원)의 판매고를 달성했다. 동일연도 기준 택배건수는 약 4만 1000건(월 평균 3400건)에 달한다. 주요 품목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농산물 10억9300만원(48%), 축산물 9

억4000만원(42%), 가공식품 1억9500만원(9%), 기타 1900만원(1%) 등으로 집계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온라인 소비문화 증가에 발맞춰 지역 농가, 업체의 온라인 판로 확보와 가격 경쟁력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 판로 부진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농산물 마케팅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도장터에는 도내 1300여 농축수산물 업체가 입점해있다. 2020년에는 직전년도 대비 약 5배 증가한 326억원의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다. 기동취재본부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